



백삼위 안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대림 제4주일
제34권 4호(가해) 2013.12.22

[묵상]



<요셉의 꿈>

요셉은
구세주탄생의
가장 훌륭한
조력자였습니다.

어느새...

어느새 제대 앞에는 네 개의 초가 모두 밝혀져 있다.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는데,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도 모르는데,
어느새 제대 앞에 촛불이 모두 밝혀져 있다.

우리의 기다림이 간절하지 않았음에도,
그렇게 촛불은 모두 밝혀졌다.

무엇 하나 제대로 한 것이 없는데,
그렇게 제대 앞 네 개의 초가 모두 밝혀졌다.

왜 그렇게도 어리석은지,
작년 이맘때 난 같은 마음이었고,
다음에는 정말,
정말 준비를 잘하고,
결심한 것을 꼭 지키겠다고 다짐했건만,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다.

그래도 좋다,
오실 당신을 생각하며,
다시 시작하자.

-오-

petrus3@hanmail.net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310)283-5879
연령회 (장례시 연락처) : (310)720-8240

월요일	새벽 미사	오전	6:30
화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수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청년미사)	오전 오후	8:30 7:00
주일	아침 미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오전 오전	7:30 9:30 11:00

주간행사표

수요일	레지오 마리아	오후 8:00
목요일	성시간(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아 예비자 교리반 성령기도회 울뜨레아(4째주)	저녁 미사후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성경공부(그룹반) M.E. Sharing(3째주)	오전 9:30 오후 7:00
토요일	유아세례(작수달 4째토요일) 소년 레지오 마리아 배른 청년모임	오후 6:00 오후 3:00 오후 6:00
주일	레지오 마리아 아도라페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 ● 안나회/양업회, 성모회 자모회/대건회/원서회 ● 꾸리아 3째주 - 모임의 날 ● 요셉회 ● 제대회 4째주 - 사목회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오전 9:30 오후 1:00 오후 1:45 오후 1:00 오후 1:00

- ※ 교해성사: 미사 30분 전
- ※ 혼배성사: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 오전 9시30분

주임신부: 오창근 베드로 (310)326-4350 Ext.106
전교수녀: 오향숙 마우라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협회장: 최기남 야고보 (310)569-3940
사무실: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 요	(연)최근석 마리아
특전미사	(생)권이순 이레나, 김호인 펠라벳타, 김형순 다니엘
주 일 낮 미사	(연)김성일 바오로, 신대진 베드로, 이정용 야고보, 유정복 베네딕타, 이명자 로사, 이용식 베드로, 이윤조 클라라, 고준희 제임스, 변세연 대건안드레아, 나기윤 라우렌시오, 나성훈 안드레아, 송봉규 요셉 & 송공량 카타리나, 김현자, 조지 G.가보라, 반순례 안나, 김경숙 모니카, 주용범 아브라함, 임재화 안나,
	(생)변혜경 율리아나, 오세원 아타나시오, 이재숙 테레사, 김명숙 루실라 & 김택수 프란치스코 가정, 안진영 릴리엔, 유철희 바오로 & 유현자 안나 가정, 김영재 클라라, 오아타나시오와 루치아의 대자녀들, 정규숙 안나 & 정우석 루카, 김상연 마리아 & 강병숙 막달레나, 이순자 비비안나 & 이민상 사도요한, 홍석인 체칠리아, 오마우라 수녀, 하비/카스 구역원가정들, 토런스 서3반 가정들, 사무실 봉사자 가정들,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이사야서(Isaiah) 7,10-14

화답송 ○주님이 들어가신다. 영광의 임금님이다.



영광의 임금님 들어가시니. 그분이 임금님-이시다.

○주님의 것이라네, 온 땅과 그 안에 가득 찬 것들,
온 누리와 그 안에 사는 것들.
그분이 물 위에 세우시고, 강 위에 굳히셨네.○
○누가 주님의 산에 오를 수 있으랴?
누가 그 거룩한 곳에 설 수 있으랴?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결백한 이,
헛된 것에 정신을 팔지 않는 이라네.○
○그는 주님께 복을 받으리라.
구원의 하느님께 의로움을 얻으리라.
이들이 야곱이라네. 그분을 찾는 세대,
그분 얼굴을 찾는 세대라네.○

제 2독서 로마서(Romans) 1,1-7

복 음 ○알렐루야.

환호송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복 음 마태오(Matthew) 1,18-24

영성체송 보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특전)	아침 미사	낮 미사
입당	129	132	129
봉헌	269	269	270
성체	주님의 마음으로	280	292
파견	임마누엘	128	131

올바른 성모신심

제3장 성모공경을 드러내는 기도와 성월

6) 성모찬미가 ‘아카티스토스’

이 작품은 그리스 말 알파벳 글자 순서를 따라 처음 시작되는 단어를 선택하여 24편으로 구성된 연작 찬미시이다. 그리스 문자 24라는 숫자에 맞추어져 있을 뿐 아니라 12로 구분할 수도있도록 짜여 있다. 매 홀수 편 끝은 “기뻐하십시오, 동정녀시여, 신부시여!” 라는 환호로 맺고, 짝수 편은 “알렐루야!”라는 환호로 맺고 있다.

전반 12편은 천사의 예수님 탄생 예고로부터 시작하여 시메온의 예언에 이르기까지 성경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가 노래되고 있으며, 후반 12편은 강생의 신비 안에서 마리아의 동정 신비가 찬미되고 있다. 시(詩)이기 때문에 과장된 표현이 있다. 그러나 아카티스토스는 성모 마리아의 덕성과 역할을 잘 드러내는 탁월한 찬미가이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의 구원 신비에 다가갈 수 있게 이끌어 주는 기도이다.

7) 성모 성월

콧트 교회에서는 이미 6세기부터 오랜 기간 성모 공경 축제를 지내 왔고, 11세기에 이르러 한 달 동안의 고유한 성모 성월을 지냈다. 비잔틴 교회에서는 8월을 성모 성월로 지냈다. 로마 가톨릭 교회가 성모 성월을 지내기 시작한 것은 중세 때부터였다. 성모 성월을 5월로 정한 것은 로마와 게르만 민족의 세속적인 봄의 축제가 그리스도교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5월이 주는 자연의 신선한 풍요로움을 영적으로 마리아와 연결시키면서 발전한 것이다. 좋은 날씨와 풍년을 기원하면서 사용하던 푸른 잎은 성모님과 연관되면서 장미꽃으로 소재를 바꾸게 되었다. 성모 성월동안 신자들은 촛불을 들고 공원 같은 곳에서 행렬하면서 성모님께 다양한 기도와 찬미를 드린다.

비오 12세 교황은, 성모 성월 신심 행사가 엄격한 의미에서 전례에 속하지는 않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전례상의 예배 행위로 간주할 만한 신심이라고 그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바오로 6세 교황은, 성모 성월은 세계 도처의 신자들이 하늘의 여왕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달이라고 언급하였다. 로마 가톨릭 교회가 성모 성월 신심에 대하여 정식으로 전례양식을 발표한 적은 없지만, 신자들의 관심사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성모 공경을 인정하면서 권장해 왔다.

우리나라에는 제6대 조선교구장 리델(Ridel, 李福明) 주교가 1877년 재임국한 후, 중국의 예수회 선교사 이탁(李鐸)이 저술한 『성모 성월』 이 한글 번역본으로 간행되어 널리 유포되었으며, 성모 공경이 권장되었다. 한글본 『성모 성월』 의 내용 구성은 서문과 차례, 본문으로 되어 있다.

<◆계속>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오래전 제가 사목했던 본당 근처에 몸이 많이 불편해서 봉성체를 하였던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제가 그 본당에 부임해서 가장 먼저 방문한 곳 역시 그분의 집이었습니다. “할머니, 혼자 사세요?” / “신부님, 우리 집 식구는 세 명이예요.” / “예?” / “성모님, 예수님, 그리고 나. 이렇게 세 명이 함께 살아요.”

그래서 제가 “요셉 성인만 불쌍하게 됐네요.”라고 농담을 하자 할머니께서는 “그러네요!” 하시고는 이내 까르르 웃으셨습니다. “신부님, 저는 정말 그분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외롭지 않아요.” 할머니의 표정은 사뭇 진지했습니다.

그로부터 일 년 정도가 지난 후에 할머니는 병세가 악화되어 병자성사를 받으셨는데, 그날따라 곱게 한복을 입고 계셨습니다. “신부님! 잘 받으세요.” / “네?” 저는 깜짝 놀라 손사래를 치며 손자뻘인 제게 왜 절을 하시느냐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얼마 못 살아요. 마지막으로 하직 인사를 드리려고요. 이 누추한 곳에 매달와 주신 것도 고마워요.”

할머니는 엉거주춤 무릎을 꿇고 있는 제게 불편한 몸으로 자꾸만 절을 하려고 하셨습니다. 저는 정말 할머니와 영원한 이별을 하게 될 것만 같아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러자 할머니께서는 오히려 저를 위로하셨습니다. “신부님, 나는 성모님, 예수님과 같이 있으니 어딜 가도 무섭지 않아요.”

그 후 채 한 달이 못 되어 할머니는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임종을 지켰던 신자들이 할머니가 정말 편안한 표정으로 숨을 거두셨다고 했습니다. “난 성모님, 예수님과 같이 살아요.”라고 말씀하시며 소녀처럼 활짝 웃으시던 그 할머니의 미소는 지금도 생생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청년 요셉에게 천사는, 약혼한 처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아이를 잉태하리라는 소식을 전합니다. 요셉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요셉은 얼마나 많이 당황했을까요? 하지만 더 당혹스러운 사람은 당사자인 마리아였습니다.

천사의 말인즉, 그가 낳을 아들은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입니다.(마태 1,20-21 참조) 그 아들의 이름은 임마누엘. 이는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느님께서 함께하신다’라는 말씀은 성경과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느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차마 내버리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마리아가 두려움과 고통을 겪을 수도 있는 이 사건을 하느님의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함께하신다는 깊은 믿음에서 가능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어둠의 음산한 골짜기를 지나간다 하여도 무섭지 않을 것입니다.(시편 23,4 참조) 늘 우리와 함께하시는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고통에 신음하고 역울함에 서러운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힘을 내어라.”

◆허영엽 마티아 신부 /

서울대교구교구장 비서실 수석비서

김장하다

앞마다 커커이 소금을 품고 나서야 배추는 비로소 김치가 되고, 소금 더미를 맨살로 부대껴야만 생선은 한 점 젓갈이 되는 구나.

생이 얼마나 짝으면 소금 없이도 우린 숨죽고 곁이 삭아 지금에 이르렀나. 한 번 김장으로 겨울이 든든한데 어떨가. 우린. 지금쯤 맛깔나는 반찬 한 접시 정도는 되어 남은 세월 든든한 것인가.

◆이영 아네스/수필가

이번주 전례봉사회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조병준 플로렌시오	신덕레 데레사	이진향 아네스
제1독서자	최보나 보나	이민상 요한	이영석 크리스토퍼
제2독서자	박민환 미카엘	이순자 비비안나	전하현 마리아
제물봉헌자			하버/카슨 1,2반

다음주 전례봉사회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이은지 수산나	신덕레 데레사	박희자 마리아
제1독서자	곽수민 히메리오	박진수 스테파노	이상철 크리스토퍼
제2독서자	유보나 보나	박혜경 레나타	이희경 크리스티나
제물봉헌자			토런스 동 2반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일찍 와서 묵주기도를 바칩시다.

대림
제4주일
(가해)

오늘 대림환에 마지막 흰색 촛불을 밝혔 습니다. 흰색에는 기쁨, 환희, 희망, 순명 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 성탄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 신 하느님께서 비천한 우리 가운데 구세주로 오시니, 우리 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성탄 / 송년 / 새해 미사 안내

- ◆ 성탄 대축일 밤미사 : 24일(화) 밤 9시
- ◆ 성탄 대축일 낮미사 : 25일(수) 오전 11시
학생미사는 따로 없습니다.
- ◆ 송년감사 미사 : 31일(화) 밤11시
<천주의 성모마리아대축일 특전미사를 경하지 않습니다.>
- ◆ 천주의 성모마리아 대축일 미사 : 2014년 1월1일(수)
오전 11시

- ◆ 새해(2014년/갑오년/가해) 본당 달력을 선물로 드립니다.
2014년 백삼위본당 달력을 교우여러분께 선물로 드립니다.

- 캘린더 주제 : A형 세계의 아름다운 성당, C형 평화를 구하는 기도 두종류입니다.(가정당 A형,B형 각1부씩)
- 전례력, 독서, 복음, 축일, 절기 등을 담은 새해 달력은 신앙생활에 좋은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 성탄대축일 밤미사(24일)후부터 배포
- 달력제작에 도움을 주신 광고후원 교우들에게 감사드립니다.

- ◆ 성탄대축일 밤/낮 미사후 성모회가 간식 마련

- 24일 성탄대축일 밤미사후 : 어묵국
- 25일 성탄대축일 낮미사후 : 떡나눔

- ◆ 한해를 보내며... 송년 저녁식사에 전신자를 초대합니다.
올한해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주신 주님과 본당을 위해

애쓰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본당의 모든 교우들을 저녁 식사에 초대합니다. 많이들 참석하시어 서로 축복을 빌어 주시고 즐거운 시간 되기 바랍니다.

- 일시 : 29일(주일) 오후 5시
- 장소 : 본당 친교장

- ◆ 안나회 동전 모으기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 봉헌내역 : 2012년 주일미사 전후 본당 안나회가 봉사한 불우이웃과 장애인 돕기 동전모으기 바구니에 \$1,109.55 를 넣어주셨습니다.
이 금액은 본당 빈첸시오회와 LA 다운타운에 있는 작은 예수회, 그리고 LA대교구 은퇴수도자 기금에 나누 어 각각 전달됩니다.

- ◆ 친교자리 배식때 어르신들과 급한분들께 순서를 양보합니다.

- 소공동체가 매주일 봉사하는 친교자리(점심나누기)에 담당 반원들의 수고가 큼니다. 그런데 줄서서 기다리고 음식이 오가는 과정에서 간혹 무질서한 풍경이 벌어지곤 합니다. 어르신들과 급한분들께 양보하고 배려하는 분위기를 만들어갑시다.

- ◆ 2013년 교무금과 성전헌금을 12월중에 마감합니다.

- 올 한해도 교무금과 성전헌금 그리고 특별헌금과 감사헌금을 봉헌해주신 교우여러분들의 정성에 감사드립니다.
- 내년초 Income Tax Return(개인세금보고)를 앞두고, 올 해 낼 교무금이 남아있을 경우 12월 중에 마감해주시면 감세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실에 오시면 본인의 헌금기록(2013년) 조회가 가능합니다.

-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 12월22일(주일) : P.V. 2/4반(육개장 \$3)
* 주일학교 방학
- 12월29일(주일) : P.V. 3반(짬뽕밥 \$3)
* 주일학교 방학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강인모	강태홍	국세찬	김교복	김병철	김옥보
	김원호	김택수	김효진	남성철	노세미	박광자
	박기돈	박영희	박인식	박현주	성낙호	송재훈
	신순철	양영관	오강남	오신재	오영섭	유경자
	유선식	육근주	이미경	이상곤	이상규	이영석
	이재용	이현주	이형삼	장영우	정규숙	정병훈
	정혜영	정훈모	주재옥	최길주	최원석	최이원
	한창주	한혁수	황지영			
합계 : \$7,460						
주일미사 헌금 : \$3,082						

성전헌금	강인모	강태홍	국세찬	김교복	김병철	김옥보
	김원호	김효진	남성철	노세미	박인식	박현주
	성낙호	신순철	양영관	유경자	유선식	이상곤
	이상규	이일길	이현주	이형삼	장영우	정규숙
	정혜영	정훈모	최길주	최이원	한창주	한혁수
	황지영					
합계 : \$4,360						
감사헌금 : 한기찬 안 용 추수감사절2부행사출전팀						

공지사항

◆ 주일학교 / 한국학교 겨울방학

- 오늘 주일(22일), 12월29일 두주일 수업 없습니다.
- 오전 9시30분 학생미사는 어른들이 전례를 맡습니다.
- 개학 : 1월5일(주일)

◆ 한인가톨릭 청소년대회(Korean Catholic Youth Day)

- 일시 : 2014년 1월4일(토) 오전 8시30분~오후 7시30분
- 주제 : Lumen Fidei(The Light of Faith)
- 집합시간 : 1월4일 오전 7시30분 성당 파킹랏
- 장소 : Servite 하이스쿨(1952 W. La Palma Av. Anaheim)
- 대상 : 8학년~12학년
- 준비물 : 주일학교 행사 특별 티셔츠 제공
- 문의 : 이인석 주일학교 교장 ☎(213)258-8665
- 주관 : FIAT재단, KCRM

남가주 소식

◆ '커피와 신앙의 만남' 크리스마스 선물용 커피 판매

- 이나시오 커피 선물세트
- 판매 : LA 성 아그네스 성당(최대체 로베르토 신부)
- 수익금용도 : 신자 비신자 누구라도 즐길 수 있는 쉼터조성,
- 가난한 이웃돕기
- 문의 : 아그네스 성당 이나시오 카페 ☎(323)731-4433

◆ 남가주성령채신봉사회 '사랑 피정'

- 일시 : 2014년 1월10일~12일(2박3일)
- 주제 : "하느님의 사랑이신 성령" (사랑피정)
- 장소 : 드폴 피정센터
- 강사 : 이상훈 요한 신부(남가주성령채신봉사회 지도신부)
- 대상 : 기도회원 & 일반신자
- 참가비 : \$100
- 문의 : 각본당 성령기도회 회장 및

봉사회 총무담당 부회장 나 필립보 ☎(213)369-0173

◆ '좋은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 시즌4-발렌타인데이 스페셜

미혼 가톨릭 청년들의 유쾌상쾌통쾌한 만남의 자리! 신앙안에서의 좋은 인연의 시작! 서둘러 신청하세요!

- 일시 : 2014년 2월8일(토) 오후 5시
- 대상 : 남자(84-74년생), 여자(86-74년생)
- 장소 : 성 토마스 한인천주교회(412 N. Crescent Way Anaheim, CA 92801)
- 참가비 : \$80 * 신청마감 : 1월26일(주일) 남녀 선착순 20명
- 신청서 : www.stkcc.org에서 다운로드 가능
- 문의 : 이창익 라파엘 ☎(858)880-8787

◆ '성령체험 수기' 공모 중

- 내용 : 남가주성령채신대회 참가후의 성령체험 수기
- 규격 : Letter 용지 5매내외(글자크기 10포인트)
- 마감 : 2014년 3월31일(당선작발표 : 2014년 4월)

소공동체 12월 반모임 안내

소공동체 부 장		김명재 아가다 (310)866-8778	
차 장		이희경 크리스티나 박은혜 클라우디아	
차 장		김희연 루시아 정병옥 율리아	
구역/장	반	반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김춘자 막달레나 539-3377	1	이순자 비비안나 213-675-0498	엄영희 베로니카 213-278-3729 12/14(토) 오후 6시
	2	김찬구 요한 701-6343	김찬구 요한 701-6343 12/14(토) 오후 6시 홈타운부패
	3	박현희 프란치스코 592-4739	박현희 프란치스코 592-4739 12/13(금) 오후 6시30분
토런스 서 엄혜은 도토테아 200-0512	1	강인모테오도시오 780-3258	박근식 미카엘 316-7608 12/8(주일) 오후 5시
	2	심옥방 미카엘라 999-5808	윤화경 바오로 999-5808 12/14(토) 오후 6시
	3	정광미 프란체스카 617-1132	박명순 안나 968-7600 12/13(금) 오전 10시30분
토런스 남 최옥희 테레사 508-2912	1	박문주 엘리사벳 968-8280	합동 반모임 12/13(금) 오후 7시 성당
	2	최순옥 스텔라 951-4710	합동 반모임
	3	조정선 마리아 945-8204	합동 반모임
토런스 북 조화숙 안젤라 213 272-8393	1	정병옥 율리아 404-1607	정병옥 율리아 404-1607 12/16(월) 오후 7시 성당
	2	1반과 같음	
하버 카슨 윤희동 안토니오 365-7871	1/2	조소영 수산나 804-7645	서창호 바오로 257-1784 12/14(토) 오후 7시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P. V. 남경희 베네딕다 384-3289	1	박종선 리비나 213-700-6983	남성철 베네딕도 384-3289 12/13(금) 오후 7시
	2	금유미 크리스티아 482-9108	김명 스텔라 482-9208 12/6(금) 오후 7시
	3	정종미 클라라 818-1799	정종미 클라라 818-1799 12/13(금) 오후 7시 성당유아실
	4	이귀란 아베스 617-3568	이은미 가브리엘라 617-3568 12/10(화) 오전 10시30분

이번 주 단체 모임

사목회	오후 1시
다음주 단체모임	
예수,마리아,요셉의 성가정축일	

성탄 선물

제가 열아홉 살 때 아버지는 하늘로 가셨습니다. 돌아가신 후 생활에 일어난 많은 변화들을 감당하느라 벅차기도 했고, 단순히 더이상 아버지를 볼 수 없다는 사실에 한참을 슬퍼해야 했습니다. 족히 2년은 그렇게 날개 부러진 새처럼 지냈지 싶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5년 후 저는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곁에서 너무나 많은 부분을 채워주었기 때문에 아버지와의 별리에 더이상 슬퍼하지 않고 제법 단담하게 아버지를 그리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몇 해가 더 지나고 아버지와의 많은 기억들이 점차 머리속에서 소멸되어 가는 것을 알아차리고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기억을 잃는 것은 또 다른 두 번째의 이별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도 부엌에 빛바랜 사진 같은 모습으로 남아 아무리 애를 써도 또렷한 모습을 떠올리기 힘들어졌습니다. 하느님 곁에서 편히 쉬시리라는 생각도 다시 되풀이되는 이별의 아픔을 누그러뜨려 주는 데는 도움이 안됐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버지를 두 번 잃었습니다.

세월이 한참 흐른 뒤에 중년이 되어 성당을 찾은 어느 성탄절이었습니다. 게으름을 부리다 늦게 도착한 성당은 이미 미사보터 온 사람들로 초만원에 이루어 복도까지 꽉 차 있었습니다. 성당 안쪽은 전혀 보이지 않았고, 스피커를 통해 들리는 소리가 이끄는 대로 미사를 드릴 수 밖에 없어 현관 앞자리에 간신히 몸을 들이밀었습니다. 병풍처럼 앞을 채운 사람들의 실루엣만이 눈앞을 채웠고, 등은 문뚝으로 들어오는 찬바람에 무방비로 노출된 상태였습니다. 참으로 못된 생각이지만 솔직히 미사가 얼른 끝났으면 싶었습니다. 성가를 부르며 숨을 '혹' 들이 쉴 때마다 솟았다 내려앉은 앞사람의 어깨가 참 낮이 익다는 생각이 든 것은 미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아는 사람인가? 왜 낮이 익지?' 그러다 생각이 어느 기억 속의 모습에 이르자 가슴이 찡찡 내려앉았습니다. 그 익숙한 어깨는 아버지의 어깨였습니다. 그토록 떠올려 보려 애를 써도 멀어져가며 사라져 버린 기억 몇 조각이 홀연히 돌아왔습니다.

심장이 마구 뛰며 이마에 땀이 배기 시작했습니다. 등을 때리던 추위도 있었고 혼돈과 충격의 소용돌이 속에서, 밀려나오는 사람들에게 떠밀려 벽에 붙어 서게 되었어도 몰랐습니다. 기적의 선물처럼 작은 기억들이 돌아왔습니다. 검버섯이 가득하고 두터웠던 아버지의 손이며, 움지 않은 일을 대하고 화가 나서서 앙다문 입술의 모습 등이 떠올랐습니다. 그렇게 애를 써도 떠오르지 않았던 시각적 이미지들이 그 날 그렇게 기적처럼 제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날 밤새 돌아온 그 장면들을 행여 다시 놓칠까 안타까워하며 행복해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그 성탄절의 일을 생각

하면 할수록 하느님께서 주신 성탄 선물이라고 밖에 달리 설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 날의 일을 지금도 떠올리면 저도 모르게 웃음이 가득해집니다. 아버지를 생각하며 드린 기도에 대한 답을 주신 것도 같습니다. 연옥을 면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주신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자! 여기 크리스마스 선물이다!" 하시며 주신 것 같기도 합니다. 두 번이나 제게서 아버지를 데려가신 하느님께서 그 성탄절에 아버지를 제게 선물처럼 돌려주셨습니다.

◆박용만 실바노 / (주)두산 회장 ·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이미'와 '아직' 사이

기다림은 수동(受動)의 단어입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소원을 이루는 능동이 아니라,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기를 기다려야 하는 수동적인 의 마입니다. 기다림은 또 미래의 단어입니다. 과거나 현재가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다림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미래의 일을 전제로 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어떤 기다림은 고통입니다. 결과와 기간이 보이지 않는 막연한 기다림은 사람을 지치고 힘들게 합니다. 하지만 바라던 바를 이룰 수 있다는 확신이 있는 기다림은 설레고 기쁜 일입니다.

요즘은 사회주의 국가나 불교 국가에서도 성탄을 화려하게 맞습니다. 상업주의의 영향도 있지만 어쨌든 성탄은 인류사의 가장 기쁘고 성대한 축제입니다. 성탄의 기다림이 즐겁고 기쁜 이유는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기 예수가 선물로 주신 인류 구원의 희망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구원의 선물을 공짜로 주시지만, 사람이 갖는 구원의 희망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구원의 희망은 믿고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성탄을 준비하는 자세는 겸손과 인내입니다. 세상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시는 아기 예수를 뵈러 가면서 세상의 높은 자리와 부귀영화를 걸치는 건 어울리지 않습니다. 왕을 기다리는 겸손한 자세로 어차피 채워지지 않는 세상의 욕심을 털어내야, 그자리에 아기 예수의 기쁜 선물이 자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다림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를 통해 하느님의 나라는 '이미' 드러났지만, 우리의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뜻일 겁니다. 구원은 내가 원하는 때에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쁜 마음으로 인내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게 그리스도인의 기다림 아닐까요? 세상을 살다 보면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시련을 겪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쉽게 좌절해 스스로의 가치를 포기하거나, 아니면 이내 복수와 미움의 날을 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자세가 아닐 겁니다. 주님께서 주신 고통과 시련의 현실을 담담히 받아들이고, 결국엔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주님이 허락하실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탁은수 배드로 / 부산 MBC 보도국 부장